

# 실버세대 여성의 모발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양은진\* · 김성남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률로 인한 노년인구 수의 증가는 노년인구의 고용증대와 경제력 향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실버산업 분야에서는 실버세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거와 의류분야를 비롯하여 미용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버세대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발미용의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버세대여성의 모발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발성질과 손상도, 모발관리태도, 모발관리인식, 모발화장품이용실태, 모발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미용서비스산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용서비스 마케팅 분야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실버세대여성의 모발관리행동을 알아본다.

실버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성질과 손상도를 알아본다.

실버세대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관리태도를 알아본다.

실버세대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관리인식을 알아본다.

실버세대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화장품 이용실태를 알아본다.

셋째, 실버세대여성의 모발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65부였으나 이중 결측치가 있는 22부를 제외한 34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 7문항은 한은영(2004), 김리라(2003)가 사용한 문항을 재인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모발관리행동은 하병조(1999), 광형심(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모발상태 2문항, 모발관리태도 17문항, 모발화장품이용 9문항, 모발관리인식·모발고민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이은주(2005)가 사용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토대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 11.5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성질과 손상도, 모발관리태도, 모발관리인식, 모발화장품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후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 Corresponding Author : idohair@skuniv.ac.kr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모발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50대, 고졸, 기혼, 배우자와 동거, 건강 상태 보통, 외모 관심도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발성질은 나이가 들수록 지성에서 건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발관리태도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모발관리 횟수가 높았으며, 염색장소로는 미용실이용이 많았으며, 염모제를 화장품 판매점이나, 미용실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머 시술 불만족 경험 유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불만족 경험이 있었다. 불만족에 대한 조치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염색색상계열에서 흑색계열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수입이 적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낮을수록 선호하며 갈색과 황금색계열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발관리인식의 결과, 모발고민의 종류는 연령이 낮을수록 윤기가 없음, 거칠고 갈라짐, 잘 끊어짐, 비듬, 가늘고 힘이 없음의 모발고민이 많았으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비듬과 가늘고 힘이 없음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발화장품 이용실태결과, 사용하는 샴푸제는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비듬샴푸와 기타의 기능성 샴푸 등 고가의 샴푸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트리트먼트를 더 많이 실시하며, 모발관리비용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발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결과, 자아존중감 집단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적극적, 소극적 자아존중감 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의존적 자아존중감 집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자아존중감 집단이 많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소극적, 의존적 자아존중감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모발관리행동은 적극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발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실버세대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미용서비스시장의 성장률도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행태에서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연령, 적극적인 자존중감을 가진 노년여성들이 적극적인 모발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미용서비스시장에서는 실버세대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모발관리행동에 대한 교육 및 소비자교육의 기회 확대, 실버세대를 위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